



10연패 치욕 속 홀로 3안타... 떨떨 난 신민재

신민재가 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네이버 K-BASEBALL 시리즈' 대한민국과 체코의 평가전 4회 초 2사 1, 3루 상황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전 10연패에 빠진 한국 야구 대표팀에서 1번 타자 신민재(LG 트윈스)는 단연 빛났다. 신민재는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첫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6안타 빈공에 그친 한국 타선에서 홀로 팀 안타의 절반을 책임지며 과거 국가대표 주전 테이블세터이자 2루수였던 정근우(은퇴)의 향기를 풍겼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신민재는 "그냥 똑같이 야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빠른 타이밍에 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맞아서 좋은 결과가 몇 개 있었던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도쿄 자체

1차 한·일 평가전서 2득점 활약 대표팀 안타 절반... 체면 살려 안현민·송성문 홈런 제외하면 나머진 자기 발로 엮어낸 점수 정근우 돌아온 듯 톱타자 든든

가 처음 가보는 것이고, 도쿄돔도 가서 겪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무심함'을 실전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3-9로 패색이 짙던 8회에도 활약은 이어졌다. 선두타자로 나서 우중간 안타를 친 신민재는 일본 우익수가 공을 잡는 동작을 보고 망설임 없이 2루까지 내달려 만회점의 발판을 닦았다.

비록 한국은 4-11로 졌지만, 마지막까지 약삭같이 치고 달렸다. 신민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스피드만 죽이지 않고 있었는데, 우익수가 조금 뒤로 가는 동작이 나와서 안 놓치고 그냥 뛰려고 생각했다"며 "그런 작은 미스가 보이면 한 베이스 더 가려고 생각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속팀 LG에서 했던 것처럼, 한 베이스 더 뛰는 야구가 일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일전이라는 무대에 대한 긴장감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똑같이 야구하는 거라 긴장되는 건 딱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신민재는 일본 투수들에 대해 "질만 했던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빠른 공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늦지 않게 치려고 하니 타이밍이 좀 맞

았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자동투구관정시스템(ABS)이 아닌 인간 심판의 판정을 경험한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서 투 스트라이크 전에 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쳤다"고 덧붙였다.

한국 야구는 16일 일본과 두 번째 경기를 통해 2025년을 마무리한다.

KBO리그 통합 우승팀 LG 주전 2루수로 화려하게 한 시즌을 보낸 신민재의 올 시즌도 이제 마지막이 보인다.

일본전 10연패를 끊는다면, 기본 좋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

신민재는 "오늘 직구로만 3안타를 쳤다. 내일도 직구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치려고 생각한다"며 "잘 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잘 준비해서 내일 잘해야죠"라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벽은 높았다... U-17 월드컵 16강 좌절

전반 자책골 포함 0-2 패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종가'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백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U-17 대표팀은 15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이스파이어존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2025 FIFA U-17 월드컵 32강에서 0-2로 패했다.



남자 U-17 대표팀 김예건 선수가 잉글랜드와 2025 FIFA U-17 월드컵 32강전에서 공을 쫓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이날 패배로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인 8강(1987년 캐나다, 2009년 나이지리아, 2019년 브라질 대회) 이상 진출의 꿈을 이뤄내지 못하고 '2026 FIFA U-17 월드컵'의 여정을 아쉽게 마무리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잉글랜드에 3무 3패로 무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격년제로 치러졌던 U-17 월드컵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열리고, 참가국도 24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다.

4개국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2위 24개국에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국에 32강에 올라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조별리그 F조 2위로 32강에 진출한 한국은 이날 조별리그 E조 2위 잉글랜드를 상대로 16강 티켓을 놓고 맞붙었다.

한국은 남이안(현대고)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김도연(충남기계공고)과 김예건(영성고)을 내

세운 4-3-3 전술을 가동했다.

김지성(매탄고)-박현수(현대고)-김도민(현대고)이 중원을 담당한 가운데 포백은 김민찬(현대고)-구현민(대건고)-정희섭(영성고)-임예찬(대건고)으로 구성됐다. 골키퍼는 박도훈(현종고)이 맡았다.

출발은 한국이 좋았다. 한국은 전반전 킥오프 4초 만에 김도연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빼앗은 뒤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지만, 주심이 몸싸움 과정에서 김도연의 반칙을 선언해 골이 취소됐다. 전반 3분에도 김예건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김도현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크로스바를 넘어가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KBO 세 번째 아시아 쿼터... 日 쇼타 SSG 유니폼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일본 국가대표 출신 오른손 투수 다케다 쇼타(32살)를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했다. SSG는 16일 "다케다와 연봉 20만 달러(약 2억9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다케다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217경기에 등판해 66승 48패, 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한 베테랑 투수다. 2015년 세계야

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2023년에도 29경기에 등판했던 다케다는 지난해 4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팀 전력에서 제외됐다. SSG는 "8월 일본프로야구 2군 경기를 관찰하면서 다케다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며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SG 랜더스

治人治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